

돌의 발자국 ‘카이켄 볼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

이런 포도밭은 생전 처음이었다. 포도나무 사이로 온 천지가 돌덩이다. 자갈이나 돌맹이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앉아서 쉬어도 될만한 커다란 바위 말이다. 있는 그대로 바위를 피해 포도나무를 심다보니 일렬로 죽 늘어선 형태가 아니라 제각각이다.

사실 포도밭 가운데 돌의 특징을 지닌 테루아는 많다. 땅 속 아래 깊숙이 암석이 있는 경우 마네랄 느낌이 인상적인 와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갈밭 토양에서는 강인하면서도 복합미가 좋은 와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 와이너리 카이켄의 아이콘 와인 ‘볼더’를 만드는 포도밭은 뭔가



카이켄의 아이콘 와인 볼더를 만드는 포도밭 전경.



카이켄 볼더. /나라셀라

좀 다르다. 땅 속, 아니면 험준한 산 속 깊이나 있을법한 커다란 바위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이 땅에서 자란 포도는 어떤 와인으로 재해석됐을까.

카이켄의 와인메이커 구스타보 오르만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포도를 기르지 않을 정도로 재배하기에 힘든 지형이지만 여기서 나온 포도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며 “볼더는 큰 바

위와 토착 식물들을 없애지 않고 공존하며 포도를 경작하기 때문에 테루아에서 오는 특유의 풍미가 인상적인 와인”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켄은 우리나라 국민와인으로 유명한 칠레 몬테스가 아르헨티나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안데스 산맥의 양편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오가며 사는 야생 거위가 원주민어로 ‘카이켄(caiquen)’이다. 야생 거위와 같은 정체성을 상징

삼아 와이너리 이름을 발음하기 쉽게 철자만 약간 바꾼 카이켄(KAIKEN)으로 정했다.

잊혀지기도 힘들 돌천지 포도밭으로 다시 돌아가본다.

이 곳은 원래 강이 흘렀던 곳이다. 강이 범람할 때면 많은 돌과 암석들이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물줄기가 바뀌는 이곳에 그대로 쏟아졌다. 강을 기준으로 북안은 모래나 점토가 쌓였고, 남안은 돌밭이 됐다. 볼더를 만드는 포도밭이 바로 3헥타르 밖에 안되는 그 돌밭이다.

와인 이름 볼더는 이런 테루아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볼더(Boulder)는 영어로 ‘비나 바람에 의해 깎인 커다란 고 둥근 돌덩이’를 뜻한다.

볼더는 아르헨티나 대표품종인 말베크 64%에 카베네 프랑 28%, 뽀피 베르도 8%를 섞어 만든다. 와인 메이커가 어떤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섞은 게 아니다. 돌밭에서 자라고 있는 품

종의 비율을 그대로 쓴 소위 ‘필드(field) 블렌드’다.

좀 더 들여다 보면 환경에 적응 또는 순응한 결과물라고 보면 된다. 말베크는 바위가 많고, 태양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란다. 카베네 프랑과 뽀피 베르도도 환경에 적응해 말베크와 같은 시기에 수확이 가능해졌다. 반면 카베네 소비뇽이나 멀룬은 척박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포도알이 과숙된다. 매우 건조한 이곳에서 장애물 같았던 암석은 아래로 수분을 머금고 있어 포도나무가 암석 주변으로 뿌리를 뻗어내렸다. 이정도면 암석들이 남긴 무계획의 계획인셈이다.

포도밭이 3헥타르 밖에 안되다보니 볼더 생산량도 3000병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적다. 조금씩 따라 한 병을 열 명이 나눠 마신다 해도 전세계에서 볼더를 마실 수 있는 이는 4만명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 빈티지가 내년 2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머릿속 피해의식으로 괴롭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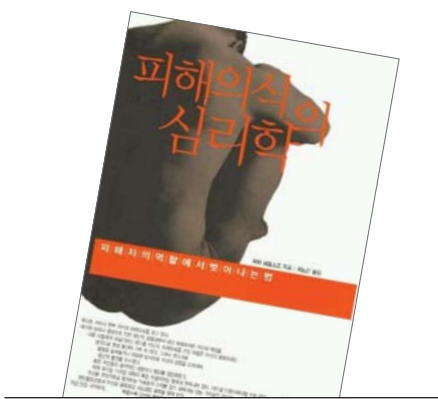
강력 범죄의 상당수가 가해자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다.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다. 그들은 늘 죄 없는 피해자나 불우한 가정환경, 자신을 성심껏 돌봐주지 않은 사회 탓을 한다.

‘피해의식의 심리학’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만 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누구나 머릿속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운 나날들을 보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책에는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명백한 재난의 피해자로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불행한 상황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자연재해의 경험에서 가장 놀랍고 인상적이었던 일은 이웃들의 협동심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단기간 내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아끼던 물건을 모두 잃었지만 홍수의 피해보다는 이웃들이 줬던 큰 사랑을 더 많이 언급했다.

저자는 “이미 일어났던 비극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참으로 존경할만했다”면서 “비극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줄 아는 사람은 아픈 경험을 극복하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누구든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그러고는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이런 소중한 경험으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강한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피해의식의 심리학

아아 헤프스트 지음/이노는 옮김/양문

깨닫게 된다”고 밝힌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불쾌한 경험들이 실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며, 변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책은 강조한다. 고 통스러운 체험을 통해 오히려 현명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고통과 아픔은 흔히 생각하듯 영혼과 정신이 병들었다거나 성격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싶어한다는 뚜렷한 외침이다.

저자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피해의식에 고정시키고 있으면, 고통과 아픔이 아무런 희망이나 의미도 없이 끔찍하게만 여겨진다”면서 “그렇지라도 미래로 발전하는 씨앗은 어딘가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언제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이다”고 말한다.

242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데이비드 벨로스, 알렉산드르 몬테규 지음/이영아 옮김/현암사

책장에 꽂힌 소설과 시, 스마트폰으로 보던 숏츠와 릴스 영상, 길에서 들리는 음악... 우리는 무형 콘텐츠의 파도에 파묻혀 살아간다. 콘텐츠 홍수 시대, 무형의 창작물은 돈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종한다. 이 모든 무형 자산은 누구의 것이며, 수익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책을 찍어내게 되면서 출판된 글에 대한 권리는 인쇄업

자가 독점하게 됐다. 18세기 영국은 이들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자에게 주어졌다. 이후 전 세계에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은 저작자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퍼져 나갔다. 저작권이 탄생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그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며 저작권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낸 책.

404쪽. 2만3000원.



신뢰는 어떻게 사기가 되는가

쑨중싱 지음/박소정 옮김/세종서적

신뢰와 사기는 한 곳 차이이다. 믿음이 있기에 사기가 성립된다. 사기는 ‘믿음’이라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 심리적 전술이며, 사기와 믿음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저자는 우리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한 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책에 따르면, 거짓말과 사기는 사악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면접 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

만 선택해 말하는 소극적 거짓말부터 각종 이유로 인한 자기기만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거짓말과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책은 사회학·심리학·철학·역사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사기와 신뢰’의 관계를 분석하며, 신뢰가 사기로 변하는 매커니즘을 밝힌다.

280쪽. 1만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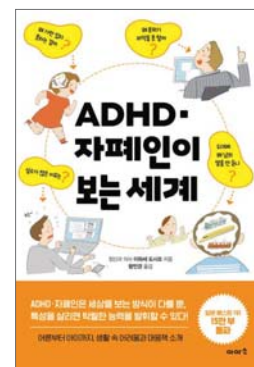
ADHD·자폐인이 보는 세계

이와세 도시오 지음/왕언경 옮김/아사노

상대에게 실례되는 말을 아무런 약의 없이 하거나,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거나,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울어 주변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 당신의 아이 또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자폐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30여년간 ADHD, 자폐인들을 치료해온 발달장애 전문의인 저자는 실제 사례를 통해 ‘ADHD·자폐인이 보는

세계’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ASD(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과민한 감각은 예술적 감성으로 승화할 수 있고, 특유의 논리적 사고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ADHD인은 행동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 창조적인 일을 잘 수행한다. ADHD, 자폐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

196쪽. 1만8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전쟁 핑계 안 먹히네...이스라엘 법원, 네타냐후 재판 연기 신청 기각
▲필리핀 정부 “ICC 두테르테에 수배령 내리면 협조”
/사진 뉴시스

▲伊 대통령 ‘내정 간섭’ 일론 머스크에 “상대국 주권 존중해야”
▲일본 정부, 사형제 존폐 논의 요구에 “적절하지 않다”



▲이란 외무 “美와의 갈등 해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마찰 줄여야”
▲트럼프, 대사·중동특사 인선으로 ‘親 이스라엘’ 정책 예고
/사진 뉴시스